

광주지역 개고기서 항생제·세균 검출

동물자유연대 조사...양동·남광주시장 업소 3곳서 나와 식품으로 분류 안돼 위생검사 사각지대...대책 마련 시급

광주지역에서 판매하는 지육(枝肉·도살 후 조리가 안 된 상태) 개고기에서 '항생제'와 세균·바이러스 등이 검출됐다.

개고기는 식육을 위한 축산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집에서 불투명한 유통 과정은 물론 비위생적 사육환경에 따른 항생제 과다 투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28일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식육 사육 개들의 항생제 사용실태 및 세균 검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개고기를 지육 상태로 판매하는 업소는 양동시장 2곳, 남광주시장 1곳 등 3곳이다. 이들 업체에서는 도축한 개를 부위별로 나눠 1근(600g·㎏ 포함돼 실제 고기부위는 400g)당 5000~6000원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건국대 수의과대학 3R

동물복지연구소에 의뢰해 국내 처음으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를 포함한 전국 12개 지역 93개 개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개고기 위생검사를 진행했다. 개고기는 현행법상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에서는 개고기 위생검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게 동물자유연대의 설명이다. 다만, 전남 등 5개 시·도는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이번 검사에선 93개 샘플 중 61개(65.4%)에서 항생제 8종이 검출됐다. 이 중 검출한계 미만으로 나온 샘플을 빼면 42개 샘플(45.2%)에서 항생제 잔류치가 검출됐다.

지난해 4분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 실적을 기준으로 소와 돼지, 닭의 항생제 검출 실적이 각각 0.44%, 0.62%, 0.13%라

는 점에서 최대 496배에 이르는 검출 빈도를 보인다.

또 대부분의 조사 대상 살고기에서 세균·바이러스 등 미생물 24종이 검출됐으며, 일부 개고기에서는 양서류에서 주로 발견되는 미생물 '에로모나스'가 검출되는 등 오염된 환경에서 사육되고 유통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다양한 검사 결과물이 나왔다.

특히 광주 양동시장 내 A업체에서 판매하는 개고기에서는 항생제 성분의 일종인 린코마이신 0.028mg/kg, 설파메톡사졸 0.03mg/kg, 설파티아졸(검출 한계 미만)이, B업체에서는 아목시실린 0.025mg/kg, 린코마이신 0.01mg/kg, 설파티아졸(검출한계 미만)이 검출됐다.

남광주시장 업체 개고기에서는 엔로플록사신(검출한계 미만)이 나왔다. 양동시장에서 판매하는 개고기에선 2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되는 등 광주지역 개고기 업소에서 판매하는 지육 상태의 모든 개고

기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사람에게 주사제로 주로 투여되는 린코마이신은 피부발진, 복통,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고, 아목시실린은 빈혈, 혈소판 감소증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엔로플록사신은 사람에게 식중독균인 캄피로박터균 변종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고,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유전자를 퍼뜨려 미국에서는 1996년 이후 가금용 항생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광주 매곡동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도축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개사육 농장에 대해 경찰 조사가 들어간 상황에서 '항생제 개고기'까지 확인되며 동물단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등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00여 곳에 달하던 광주지역 보신탕집이 현재는 50여곳으로 줄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닭·계란 이어 흡에서도 DDT 검출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집중단속

닭과 계란 이어 일부지역 산란계 농장 땅에서도 DDT가 검출되는 등 살충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실체가 드러난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산과 영천 산란계 농장에서 계란을 받아온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자체 조사한 결과 경산과 영천 농장 토양 시료 6점 모두에서 맹독성 살충제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이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검출치는 0.3~1.5ppm(mg/kg)이다.

이에 따라 한살림측은 DDT가 남은 흡을 닭이 체내로 흡수해 계란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했다. 경산과 영천 농장은 일부 닭과 계란에서도 DDT가 나온 바 있다. DDT는 1960~1970년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다가 1979년 국내 판매가 금지됐다. 잔류 성분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기간인 반감기가 수십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이 같은 국민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끊고 관련 부패·비리를 근절하고자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65일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 인증기관 ▲허위 친환경 인증을 부추기는 농자재 업체·브로커 ▲민간 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농업 분야 퇴직공무원(일명 '농피아')의 유착 비리를 끊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폐건전지는 수거함에 버리세요” 28일 오전 광주시 북구 문화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빈 유유통을 이용해 폐건전지 수거함을 만들고 있다. 이날 행사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자연순환교육으로, 광주 북구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마련했다.

28일 오전 광주시 북구 문화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빈 유유통을 이용해 폐건전지 수거함을 만들고 있다. 이날 행사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자연순환교육으로, 광주 북구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마련했다.

28일 오전 광주시 북구 문화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빈 유유통을 이용해 폐건전지 수거함을 만들고 있다. 이날 행사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자연순환교육으로, 광주 북구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마련했다.

저수지 빠진 승용차서 모녀 숨진 채 발견

장성의 한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1분께 장성군 삼서면 함동저수지에서 베르나 승용차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승용차 안에서는 차량 소유주인 A(여·46)씨와 딸 B(19)양의 시신이 함께 발견됐다.

A씨나 사고 차량과 관련해 접수된 실종·도난 신고는 없었으며 인근 잔디밭에

는 저수지 방향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 바퀴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1시 40분께 차량이 저수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10km 떨어진 도로 CCTV에 찍힌 점과 제조일자가 24일로 찍힌 삼각김밥이 차 안에서 발견된 점, 시신의 상태 등으로 마취 차량이 지난 25일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성이 친정인 A씨는 남편과 7년여간 별거중으로, 인근 도시에서 대학생 딸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지원 대상은 아니었지만, 평생 고질적인 피부질환을 앓아오면서 최근 별다른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히 최근 딸이 다니는 대학교의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정에 연락했지만, 친정의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마감일인 지난 25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

암 투병 환자 등쳐 수익 가로챈 30대 구속

여수에서 암 투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여수경찰은 “암 환자의 보험금 수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모(3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5년 8월 여수의 한 종합병원 암 병동에서 환자 A(62)씨에게 접근해 식사를 사주며 친분을 쌓은 뒤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하고 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무직인 전씨는 당시 병원 인근 식당에서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는 암 투병 환자들을 대화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을 오가며 A씨 등에게 음식 등을 사주고 환심을 사는 수법을 동원했다.

전씨는 이후 A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계좌로 140만원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환심을 산 뒤 두 달간 A씨 등 환자

3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잠적했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처음부터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100만원만 해보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으며, 마치 주식 배당을 받은 것처럼 속여 100만원 투자시 원금을 포함해 140만원을 입금하는 수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또 47억원이 압류돼 있는 내용이 담긴 공문서 17매를 위조해 A씨 등에게 보여 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전씨는 암 진단을 받으므로 보험금이 사전에 입금돼 암투병 환자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한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경찰은 전씨가 압류 공문서를 위조해 자신을 재력가라고 과시한 데다 다른 사람 계좌를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태풍에 창문 떨어져 차량 파손 아파트 대표회의에 50% 책임

태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이환기 판사)은 “A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상금의 50%인 8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강풍으로 B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C씨의 차량이 파손되자 보험 가입자인 C씨에게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아파트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서 태풍은 이변에 속하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불 번져 옆집 피해 컸더라도 원인 불분명할 땐 책임 못 물어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일어난 불이 옆집까지 번져 피해를 컸더라도 화재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무조건 물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단지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불이 시작된 집 세대주 이모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267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 심에서 이씨측이 패소한 1·2심을 깨고 이씨측 승소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 11월 이씨의 집에서 난 불은 아파트 옆집과 위아래층 등 인접 7세대로 번지면서 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측 보험사는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 세대들에 총 2670여만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이 금액만큼을 이씨측 보험사에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진표기자 lucky@

가출 소녀 성매매 강요하고 침 뱉은 개사료 먹인 ‘엽기 연인’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다며 침 뱉은 개 사료를 먹이는 등 엽기 범행을 한 20대 연인이 나란히 교도소 행.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8일 지난 1월 가출한 A양을 우연히 알게 된 뒤 16일 동안 5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까지 챙긴 데 이어 A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철사 옷걸이로 양손을 묶고 나무 막대기

등으로 폭행하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침이 섞인 개 사료까지 억지로 먹인 B(25)씨와 C(여·2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

○...정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단이 가학적이고 엽기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나쁜 점과 피해자가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가출한 나이 어린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줄 사회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연합뉴스

<h2>부안 숙박시설(모텔)</h2> <p>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p> <p>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p> <p>감정가 16억 → 매매가 10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p> <p>직매 010-7384-7800</p>	<h2>수익성상가매매</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동 상가 (6층) 45평 → 5,000만 리모델링 완비 → 즉시입주, 시비무료, 임대가능 매가 1억6천 → 9천(용5천) ◆ 상무지구 상가(4층) 45평 → 케이원상가 → (보2천, 월130만, 용7천) 매가 2억5천 → 1억9천 ◆ 상무지구 상가(6층) 19평 → 롯데마트 앞 → (보500만, 월40만, 용2,500만) 매가 1억 → 7천5백 ◆ 경기 평택시 토지 매입할부 → 전원주택, 농지 투자, 개발 → 평당 130만원 ◆ 서울 용산구 청파동상가 → 서울역 3분 → 상가 (오피스텔2개) 보600, 월70만 / 매가1억2천 <p>010-6670-9800</p>	<h2>영광주택</h2> <p>전원주택(영광읍)</p> <p>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p> <p>내부개끗</p> <p>토지 151평</p> <p>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p> <p>010-2699-5300</p>	<h2>법률경매</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무지구 치평동 상가 1층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천 2) 동구 금남로 충장로 코너(15층 상가건물)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75억(특A급) 3) 북구 삼각동 상가건물 (4층) 병원, 요양병원 적합 감정가 189억 → 최저가 85억 4) 상무지구 치평동 지하상가 (교회, 기타적합)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5) 상무지구 치평동 4층 상가코너 (병원)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10억5천 6)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 → 최저가 17억 7) 충남 흥성 상가건물 (주유소, 모텔, 식당중합건물) 감정가 55억 → 최저가 13억 8) 전주시 완산구 상가건물 (노후대비상가) 감정가 13억5천 → 최저가 9억4천 <p>특수물건, 절반물건, 상가, 토지, NPL전문</p> <p>경매교육</p> <p>매주월요일 개강</p> <p>010-2699-5300</p>
--	--	--	--